

벌초·풀베기 작업 전, 예초기 안전 사용 수칙 꼭 알아두세요

- 농기계 관련 농업인 사고 중 예초기 비중 14.3%
- 작업 전 예초기 칼날과 부딪힐 수 있는 위험물 제거
- 신체 보호구 착용 필수...칼날 멈췄다면 동력 차단 후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벌초, 풀베기 작업이 집중되는 9월을 맞아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초기 안전 사용 수칙’을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5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관련 사고의 기종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경운기가 전체 25.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초기(14.3%), 트랙터(13.6%), 관리기(9.0%) 순으로 나타났다.

예초기 관련 주요 사고로는 회전 칼날에 충돌한 돌 등 이물질로 인한 외상, 작업 중 칼날 베임 사고, 이물질 제거 중 갑작스러운 칼날 회전으로 인한 부상 등이 있다.

평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칼날 사용 및 안전 덮개 장착 △작업자 신체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주변 공간 정리 △동력 차단 후 점검 등 기본 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안전 칼날 사용 및 안전 덮개 장착=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도날(일자날)은 자갈 등 이물질과 충돌 시 파편이 튀어 작업자에게 심각한 외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원형톱날, 끈날(나일론날), 충격을 자동으로 감지해 날이 접히는 구조의 안전날은 2도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 또한, 칼날 부분에 안전

덮개를 장착하면 사고 예방 효과가 커진다.

△작업자 신체 보호구 착용= 작업자는 보안경이나 안면보호구, 안전모, 청력 보호구, 진동방지 장갑, 정강이·무릎 보호대,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갖추어 착용한다.

△작업 전 주변 공간 정리= 돌, 유리병, 철사, 캔, 굵은 나뭇가지처럼 칼날에 부딪혀 튕릴 수 있는 물체를 미리 치운다. 작업 중에는 돌이나 파편이 멀리 날아갈 수 있으므로 작업 반경 15m 이내에는 다른 사람 접근을 막는다.

작업장 주변에 사람이 들어오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된 뒤 다시 작업한다. 비가 올 때는 예초 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 중에는 예초기를 허리 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리지 않는다.

△동력 차단 후 점검= 작업 중 예초기 작동이 멈췄다면 곧바로 손대지 말고, 동력을 끈 뒤 회전부가 완전히 정지한 것을 확인한 뒤 점검한다. 작업을 마친 뒤 점검·정비할 때도 같은 원칙을 지킨다.

예초기 안전사용 방법과 농작업 안전 관련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 365(farmer.rda.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과 김경수 과장은 “예초기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주변 환경 정리, 장비 점검, 보호구 착용, 주변 사람과 안전거리 유지 등 단계적 방어 체계를 갖추고 실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예초기 사고예방 기본 수칙 안내문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농업인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경수 (063-238-1030)
		담당자	연구사	최동필 (063-238-1034)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예초기 사고예방 기본수칙



예초기 사고는 사고 발생이 많은 농기계 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요 사고는 돌·칼날 등이 튀어 눈·얼굴, 다리 등을 다치는 사고로
안전칼날을 사용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보안경, 안면보호구
안전모, 청력보호구 착용

☑ 진동방지
장갑 착용

☑ 안전커버 장착

★ 안전칼날 사용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원형 칼날, 끈 날 등 사용

☑ 작업 전 위험물 제거
이물질 : 돌, 유리병, 철사
캔, 굵은 나뭇가지 등

☑ 칼날
이물질 제거 시
먼저 동력 차단

★ 정강이 보호대
무릎 보호대
안전화 착용

15M

☑ 타인 접근 금지
돌이나 파편이 튀어 다칠 수 있으므로
작업반경 15m 이내 접근금지

예초작업중
접근금지

예초기 사고사례



예초기 작업 중
이물질(돌, 부러진 칼날 등)이
튀어 정강이 상해



예초기 작업 중
주변 사람에게
돌이 튀어 실명



예초 작업 중 눈노령에서
미끄러지면서 회전 중이던
예초기에 신체(발) 베임



예초기날에 이물질이 걸려
멈춰진 상태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중에 예초기날이
갑자기 회전하여 손가락 절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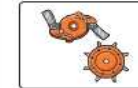
용도에 맞는 안전한 날 사용

나일론날 ☑



작은 돌맹이와
잘린 풀이 멀리까지
비산되지만
쇠날에 비해
안전성이 높음

안전날 ☑



작은 원반에
2~3개 이상의 날들이
풀을 베며 충격 시
날이 접히는 구조로
안전성이 고려됨

원형날 ☑



무게감은 다소 있으나
돌 등이 튀지 않아
안전도가 높음

2도날(암자날) ☒



자갈이나 이물질에
충돌하면 비산하여
작업자에 상해를
입힐 수 있음
*작업자 보호를 위해 사용 지양

